

## HEADLINE NEWS

### ‘평생 스포츠 사회’ 실현 위해 「스포츠 비전」 수립 (동경)

일본 東京都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인 「東京 스포츠 비전」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연령 및 흥미도에 따라 평생 동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1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都산하 지자체도 이 비전을 참고해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3가지 관점에서 추진된다. 첫째, 지역 스포츠 활동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하고, 이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토록 하는 ‘새로운 공공’을 창출한다. 둘째, 스포츠 활동을 통해 성인과 청소년의 접촉도를 높이고, 가정과 학교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력을 재구축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해 광역적 시책을 전개한다. 이번 시책은 ‘하는 스포츠’, ‘보는 스포츠’, ‘지원환경 조성’ 등을 3대 실천전략으로 삼고, 지역스포츠클럽 육성, 가족단위 관람확대 지원, 스포츠판 교류사업 지원, 스포츠활동 지원환경 조성 등을 구체적인 시책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www.metro.tokyo.jp/INET/CH/USA/2002/07/60C7F100.HTM](http://www.metro.tokyo.jp/INET/CH/USA/2002/07/60C7F100.HTM))

## HIGHLIGHTS

### 도시환경

- ① 하이드파크에 거대 생태연못 조성 (런던)
- ② 감시카메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24시간 감시 (일본: 오오이타市)

### 도시교통

- ③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관광객 대상 지하철티켓 판매 (런던)
- ④ 주말 야간시간대 대중교통 증편 (프랑크푸르트)
- ⑤ 공휴일 노선버스요금 ‘50% 할인’ 캠페인 실시 (교토)
- ⑥ 술 마시고 근무하는 지하철승무원 음주측정기로 단속 (요코하마)
- ⑦ 과속 방지·안전운전 위해 국도에 감속표시선 설치 (일본: 히라쓰카市)

### 사회복지

- ⑧ 유치원시설에 「연기경보장치」설치해 화재로 인한 질식사 예방 (독일: 브레멘市)
- ⑨ 장애인 및 노숙자 투표참여 보장·촉진책 시행 (프랑크푸르트)
- ⑩ 공중목욕탕에서 노인 건강검진 및 상담 실시 (치바)

### 행재정

- ⑪ 무선 LAN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카페 都廳」전망대에 설치 (동경)
- ⑫ 중고생이 많은 지역의 청소년문화센터 「이용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 (일본: 카와사키市)

### ① 하이드파크에 거대 생태연못 조성 (런던)

영국 런던市 하이드파크에 총 3백만 파운드 규모의 거대 생태연못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 연못은故 다이애나妃를 기리는 뜻에서 ‘다이애나 연못(Princess Diana Fountain)’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왕립공원관리국에 따르면, 다이애나 연못은 기존의 연못과 달리 생태학적 측면을 강조, 시민들이 연못 주변을 산책하며 직접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Hands-On’ 형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시민들은 1997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故 다이애나妃를 기리는 공공 시설물이 조성된다는 사실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Leuters-London, 7. 31)

### ② 감시카메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24시간 감시 (일본: 오오이타市)

일본 오오이타(大分)시는 市의 서부 산간지역 등에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 1999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감시카메라의 센서를 통해 불법투기자가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촬영된 화상은 市의 산업폐기물 대책실로 송신된다.

市는 쓰레기 대량투기 및 독성물질이 포함된 쓰레기 투기를 발견할 경우에는 불법투기자를 폐기물처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市는 앞으로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카메라 설치를 점차 늘리고, 카메라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 경고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市는 카메라 설치효과가 검증되면, 이를 市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 7. 23)

### ③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관광객 대상 지하철티켓 판매 (런던)

영국 런던 지하철은 웹사이트([www.ticket-on-line.com](http://www.ticket-on-line.com))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지하철티켓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공 등 영어권 국가들이다.

여행객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하철티켓을 구입,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표를 구입하면 약 25파운드 가량의 할인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은 런던 명소 및 박물관 이용, 그리고 주차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하루 약 5,000명 가량이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METRO, 8. 16)

### ④ 주말 야간시간대 대중교통 증편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심야 이동이 많은 주말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야간 대중교통편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市는 대중교통 기본운행시간인 새벽 5시~자정 이후에도 30분~1시간 간격으로 심야대중교통을 운행중이다. 그러나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평일보다 심야 이동이 월등히 많아 증편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市는 야간대중교통 이용시에도 市중심에서 외곽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승절차를 편리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버스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후, 노선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야간 이용요금은 주간 요금과 동일하다.

([www.nachtbus-frankfurt.de/index\\_fahrplan.html](http://www.nachtbus-frankfurt.de/index_fahrplan.html))

### 5 공휴일 노선버스요금 '50% 할인' 캠페인 실시 (교토)

일본 '교토교통'은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축제일을 포함한 공휴일의 버스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버스이용 촉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市와 인근 지역간을 운행하는 149개 노선버스에서 전개된다. 시내에서의 버스 이용이나 고속버스, 수퍼특급버스, 특급버스, 쾌속버스 등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토교통’은 올 여름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월간 버스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정기권을 발행한 바 있다. ‘교토교통’은 앞으로 버스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결과를 버스이용 촉진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토신문, 8. 19)

### 6 술 마시고 근무하는 지하철승무원 음주측정기로 단속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 교통국은 市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승무원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잦음에 따라, 알코올검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 대책을 마련했다. 市는 내쉬는 숨을 통해 알코올 유무를 검지하는 54대의 검지기와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18대의 측정기를 이용해 9월부터 지하철 및 버스의 점호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만약 알코올 농도가 0.1mg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은 근무하지 못한다. 市는 검지기 도입 후 1개월간은 전체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그 후에는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6월 하순 10일 동안을 ‘음주에 의한 불상사 재발 방지’ 기간으로 정해, 재발 방지에 집중키로 했다.

([headlines.yahoo.co.jp/hl?a=20020807-00000007-mai-l14](http://headlines.yahoo.co.jp/hl?a=20020807-00000007-mai-l14))

### 7] 과속 방지·안전운전 위해 국도에 「감속표시선」 설치 (일본: 히라쓰카市)

일본 히라쓰카(平塚)시 경찰당국은 과속 경고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국도 1호 상·하행선 일부에 「감속표시선」을 최근 설치했다. 「감속표시선」은 히라쓰카와 나카자토(中里)간 약 100미터에 이르는 중앙선 양쪽과 차선 안쪽에 파선(破線)으로 설치된다(사진 참조).

이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데, 운전자들은 도로 양쪽의 「감속표시선」으로 인해 도로폭이 좁다고 느껴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市는 그동안 1차로인 국도에서 상·하행선 모두 2차로인 시내로 들어서면 차량운행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도쿄신문, 8. 4)



### 8] 유치원시설에 「연기경보장치」 설치해 화재로 인한 질식사 예방 (독일: 브레멘市)

독일 브레멘市 내무부는 굴뚝청소원협회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해 시내 모든 유치원시설에 「연기경보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독일연방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매일 2명 정도가 화재로 사망하는데, 사망 원인의 95%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市당국은 118개의 시립·사설 유치원을 포함, 유아가 이용하는 모든 놀이공간에 「연기경보장치」를 보급, 설치할 계획이다. 69개 굴뚝용역회사들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하고, 경보장치 설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독일에서 「연기경보장치」를 설치한 가구 비율은 20가구당 1가구꼴이다. 앞으로 市는 「연기경보장치」가 가정에도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www.bremen.de) (Bremer Zeitung, 5. 20)

### 9 장애인 및 노숙자 투표참여 보장·촉진책 시행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는 모든 투표소에 안전한 진입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市는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편리한 학교와 유치원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市는 시각장애인의 투표참여를 위해 시각장애인재단의 협조를 받아 점자투표용지를 사용할 예정이다. 점자투표용지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소형녹음기를 이용해 후보자 기호 및 성명을 듣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市는 노숙자들도 노숙하는 장소가 시내 특정장소로 사실 확인이 되면, 별도의 서류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www.frankfurt.de) (Frankfurter Rundschau, 8. 19)

### 10 공중목욕탕에서 노인 건강검진 및 상담 실시 (치바)

일본 치바(千葉)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들이 공중목욕탕에서 전문가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최근 마련했다. 市는 이를 위해 시내 공중목욕탕 및 입욕시설에 보건관련 전문가들을 배치,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운동 지도사들이 운동요법과 입욕법을 1년 과정으로 주 2회, 1회 2시간 정도 교육할 예정이다. 市는 2005년까지 총 24곳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모집중이다. 요금은 무료이며, 정원은 1곳당 25명이다. 신청은 각 구청 복지서비스과에서 받고 있다.

(도쿄신문, 7. 19)

### (특) 무선 LAN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카페」 都廳 전망대에 설치 (동경)

일본 東京都는 8월부터 都廳 제1본청사의 45층 전망대 등 10여 곳의 공공 장소에서 무선 LAN을 이용한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시작했다. 시민들은 都廳 전망대로 무선 LAN 카드가 장착된 노트북 PC만 가져오면, 대용량·초고속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먼저 都廳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링크된 서비스제공업체 홈페이지에 ID와 패스워드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업체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유명 호텔,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이미 실시중이나, 공공 시설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都廳 전망대에는 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흡연 구역도 마련되어 있어, 이용자는 시내 야경을 보면서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다. 都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목적이나 시간, 만족도 등을 조사한 후, 향후 서비스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쿄신문, 8. 7)

### (특) 중고생이 많은 지역의 「청소년문화센터」 이용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 (일본: 카와사키市)

일본 카와사키(川崎)시는 2003년부터 58곳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을 현재의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 중고생들이 클럽 활동을 끝낸 후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6시까지로, 오후 6시 이후에는 단체 이용만 가능하다.

현재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연말연시인데, 내년부터는 연말연시를 제외하고는 매일 이용할 수 있다.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인데, 야간에는 임시 직원만 배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중고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면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다. (도쿄신문, 8. 2)